

(사회 : 김주민 청년, KSCF)

강문규 오재식 선배님은 한국 학생 기독교 운동의 선구자였으며 맨 앞에서 길을 여셨습니다. 이 두 분의 길을 따라가는 YMCA, KSCF 후배를 대표하여 김경민 사무총장님과 도방주 총무님께서 추모의 마음을 담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강문규 선배님 추모의 말씀 : 김경민 사무총장, YMCA)

내년 2024년, 한국YMCA전국연맹은 110년을 맞습니다.

강문규 총장님은 100여년이 넘는 한국YMCA운동 속에 눈에 띄는 높은 봉우리입니다. 한국YMCA는 강문규 총장님이 YMCA를 은퇴하신 후 강문규 시대의 정점으로부터 쪽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문규 시대의 정점은 현재 한국YMCA가 회복해야 할 미래로 종

종 인용되기도 합니다. 세계교회와 세계 시민사회에 대한 폭 넓은 경험과 식견은 한반도 평화통일 운동에 대한 현실적인 경로를 탐색하는 중요한 나침반의 역할을 수행했고 한국 사회운동의 대안적 지평을 시민운동을 통해 주창하면서 YMCA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실천적으로 제시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적 초석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가 광야의 들불처럼 창립되는 과정은 한국 현대사의 감동적인 명장면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동학농민전쟁으로부터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혁명으로 이어지는 한국 근현대사 해방운동의 맥락 안에서 강문규 시대는 분명히 의미 있는 한 역사적 지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강문규 총장님은 이 고단하고 힘든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한국YMCA운동과 한국시민사회의 자랑스러운 선배입니다. 거꾸로 거슬러 사신 강문규 총장님의 삶을 통해 후배들은 십자가의 고투와 부활의 향기를 함께 느낍니다.

강문규 시대를 무엇보다 빛나게 하는 것은 1976년 한국YMCA 목적문 제정과 청년Y, 대학Y, 청소년Y 운동의 활성화입니다. 69년 KSCF로 통합되었던 대학Y의 재건을 비롯한 청년 대학 청소년Y 운동이 80년대와 9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전국적 조직망을 구축하며 활성화 되기 시작하고 시민운동을 추동하는 엔진의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은 YMCA 운동의 교과서적 사례로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1,500 명이 넘게 모인 청년Y 전국대회와 시민운동 현장 곳곳에 참여해 왔던 대학Y 회원들의 모습은 이미 한국YMCA운동 속에서도 신화적인 장면으로 기억될 뿐입니

다.

청년Y 시 연맹을 가진 YMCA는 전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 이제는 전문 지도자들이 한국YMCA운동의 주인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YMCA는 회원운동체라는 말이 껌데기만 남았다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기가 힘듭니다. 강문규 시대에 만들어진 회원들의 교육과 훈련의 장인 의정부 다락원과 제주도 다락원도 매각되거나 운영중지 중인 상태입니다.

강문규 총장님은 봄바람 같은 미소와 따뜻한 온기를 품어내는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시쳇말로 쏜대 스타일입니다. 일말의 허언에도 추상같은 회초리를 드시는 찬바람이 생생부는 어른이셨습니다. 강총장님이 오신다는 말만 들어도 피난처를 찾아 좌불안석 공포에 떨던 선배 동료 간사님들의 모습은 아주 흔한 강문규 시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엄했던 모습은 후배 간사들의 뒷담화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강문규 총장님이 훌쩍 우리의 곁을 떠나신 후 벌써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강문규시대의 공과 과는 이제 한국 YMCA와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로 남았습니다. 한국YMCA는 강문규 시대를 넘어서는 더 넓고 높은 시대의 표준을 세우는 행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문규 시대는 풋대이자 넘어서야 할 과제로 후배들에게 남아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에 드신 강문규 총장님 후배들은 당신과 당신의 시대를 넘는 행진을 위해 최선의 분투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풋대를 세워 시대의 문제를 넘어 한 보 나아가겠습니다. 그

리고 당신의 열정과 분투에 한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